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창윤

1. 서론

예방의학은 과연 무엇을 하는 의학의 분야인가?

주위의 많은 일반인들은 지금은 예방의학이 매우 중요한 의학의 한 분야이고 또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만큼 질병의 예방에 관심이 많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25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예방의학이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고 자부하는 발표자로서도 예방의학의 정체성에 대해 변화하는 여건과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가 들 때가 많다. 이는 다만 현재 학회차원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발표자뿐만 아니라 많은 예방의학 전공자들이 한번쯤은 고민해 본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전문의제도에서 예방의학이 전문과목의 하나로 포함된 것은 1963년이었으며, 예방의학 수련기관은 다른 의학의 전문과목과 달리,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사회의학교실), 몇 개의 보건대학원, 최근에 새로 지정된 보건관련 기관들이었다.

초기에는 상당수의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분야에 종사하던 의사들이 경과조치로 예방의학 전문의를 취득하였고, 이후에도 다년간 의과대학 졸업 후 바로 예방의학교실에 다른 기초의학과 같이 '조교'로서 역할을 거쳐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1973년부터 인턴 수련후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조교'가 주역할인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을 거쳐 '예방의학 전문의'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인해 전문의 수련제도의 한 전문과목인 '예방의학'에 필연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학문으로서의 예방의학 외에 의술로서의 '예방의학'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간 학회 차원에서 '예방의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1993년 추계학술대회)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1994년 추계학술대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구성원이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거나, 구성원들의 이견) 지금까지도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교육은 그 실시기관이나 수련학습목표가 학문으로서의 예방의학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예방의학 전공의는 2005년 9월 현재 전국 35개 수련기관에 30명(1년차 12명, 2년차 10명, 3년차 8명)이 수련 받고 있으며 이도 일부 수련기관(서울의대 10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4명, 연세의대 3명)에 편중되어 있고, 그 외의 대부분의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기관은 전공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거나 1명 정도의 전공의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예방의학 전문의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나, 최근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다른 전문과목들도 학회나 심포지움을 통해 수회에 걸쳐 이런 주제들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각 전문 과목들의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한예방의학회도 이번 제57차 추계학회에 예방의학전공의 수련교육과정개선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저는 전공의 수련교육위원장으로써 현재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시하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의 문제점

(1)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질병구조의 변화는 기존의 진단과 치료중심인 임상의학으로서는 한계가 많고, 질병의 예방과 건강의 증진 등 예방의학이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며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 많아졌다. 그러나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은 의과대학을 중심한 수련기관에서 기초의학의 한분야로서 교육을 통해 이러한 변화와 역할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2) 수련교육내용의 문제점

현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학습목표'나 '예방의학과에 대한 수련기관 심사(평가)기준'에 의하면, 전문의 양성을 위한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교육내용은 학문적인 것에만 거의 국한되어 있고 의술에 관한 것은 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3) 전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의 예방의학 전공의들은 '조교'로서의 역할에서 잘 계획된 훈련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전공의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4)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 학습목표는 세부전공분야별(역학, 보건관리, 환경보건)로 구분되어 있지 못하고,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3.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교육과정 개선의 방향

예방의학의 졸업 후 의학교육의 일환으로서 학문과 의술이 함께 시행되어야 할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과정은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맞추어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학문에 치중해 있는 현행 수련교육과정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며 특이적인 의술이 보완되어야겠다. 이런 변화는 예방의학을 전문과목으로 선택해서 수련받고 있거나 향후 수련받을 많은 후배들에게 좀 더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련교육과정, 수련학습목표의 개정, 전문의 수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같은 의학을 전공하는 많은 다른 전문과목을 수련한 의사들에게도 그간의 학문으로서 보건관리, 역학(보건통계학을 포함한), 환경보건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예방의학 전문의로서의 인상(image)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지금까지 예방의학 수련기관인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보건대학원, 일부 보건기관에서의 수련을 다른 전문과목과 같이 병원을 수련기관으로 바꾸고 학문적인 훈련기관(the academic year)만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이나 보건대학원등에서 학위과정(의학석사 혹은 보건학 석사)을 수련하는 대신, 수련기관인 수련병원에서의 임상훈련(the clinical year)과 장래 진료와 관련된 여러 기관(예를 들어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강증진센터, 보건소)에서의 실무훈련(the practical year)을 갖는 다양한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수련교육과정, 수련제도도 개선해 나가야겠다.

셋째 예방의학의 수련학습목표, 수련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새로운 영역이나 조직(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 임상시험센터, 환경부, 국립암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보건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주어야 하겠다.

넷째 예방의학 전공의들도 잘 계획된 전공의 수련교육과정과 실용적인 내용(practical aspect)이 많이 보완된 수련학습목표에 따라 '조교'가 아닌 '전공의'의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겠다.

다섯째 예방의학의 한 세부전공인 산업의학이 비록 다른 전문과목으로 독립했으나, 과거의 예방의학의 세부전공분야별로 수련기관(병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가능하면 모색해 보아야겠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서술한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이나 수련교육과정의 문제점, 그 개선방향에 같은 의견은 아니더라도 다수의 예방의학 전문의나 전공의들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서 제시된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 또 제시된 새로운 영역들을 예방의학 전문의와 수련중인 전공의들의 동의와 합의로 잘 정리하여 수련과정의 개선뿐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